

Pearl

The hidden pearl of this passage is the contrast between **seeing glory and fearing men**. Yishayahu saw the glory of YHWH and spoke boldly, yet some leaders in Yehoshua's generation recognized truth and remained silent because they "loved the praise of men more than the praise of Elohim" (12:43). Their problem was not lack of information; it was divided allegiance.

This explains why Yehoshua immediately speaks about **light**. Light does more than reveal truth; it demands a response to what has been revealed. One cannot genuinely encounter light while deliberately choosing the safety of darkness. The leaders wanted inward faith without the outward cost of obedience.

Yehoshua then makes an extraordinary statement: **"He who sees Me sees Him who sent Me."** This does not present Yehoshua as acting independently of YHWH. The opposite is emphasized. His words, mission, authority, and judgment come from the Father who sent Him. He is the faithful revelation of the Sender.

The deepest point comes in verses 47–50. Yehoshua says that His present mission is not primarily to condemn the world but **to save it**. Nevertheless, rejecting His words has consequences because the very word rejected will become the standard of judgment. Mercy is offered before judgment, but mercy does not abolish accountability.

이 본문의 숨겨진 진주는 **영광을 보는 것과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사이의 대조입니다. 이사야후는 야훼의 영광을 보고 담대히 말했지만, 예호수아 시대의 일부 지도자들은 진리를 알아보면서도 침묵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12:43). 그들의 문제는 정보 부족이 아니라 **나뉜 충성심**이었습니다.

이것이 예호수아께서 곧이어 **빛**에 대해 말씀하시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빛은 단순히 진리를 드러내는 데 그치지 않고, 드러난 진리에 대한 반응을 요구합니다. 빛을 참으로 만났 으면서도 의도적으로 어둠의 안전함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지도자들은 내적인 믿음은 원했지만 순종이 요구하는 외적인 대가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호수아께서는 이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이것은 예호수아가 야훼와 독립적으로 행동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가 강조됩니다. 그의 말씀과 사명과 권위와 심판은 그를 보내신 아버지에게서 나옵니다. 그는 보내신 분을 충실하게 나타냅니다.

가장 깊은 지점은 47–50 절에 나타납니다. 예호수아께서는 자신의 현재 사명의 주된 목적이 세상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의 말씀을 거절하는 데에는 결과가 따릅니다. 거절한 바로 그 말씀이 마지막에

심판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비가 심판보다 먼저 주어지지만, 자비가 책임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본문 전체의 핵심 문제는 결국 **누구의**

Therefore, the issue throughout the passage is **음성에 더 큰 무게를 두는가**입니다. 지도자들은 ultimately **whose voice receives the greater weight**. 진리를 들었지만 사람들의 인정에 더 큰 비중을 The rulers heard truth but gave greater weight to human approval. Yehoshua, by contrast, speaks only 두었습니다. 반대로 예호수아께서는 아버지께서 what the Father commanded Him. The rulers model 명하신 것만 말씀하십니다. 지도자들은 나뉜 순종을 divided obedience; Yehoshua models perfect 보여 주지만, 예호수아께서는 완전한 충성을 보여 faithfulness. 주십니다.

Final Synthesis

요한 12:41-50 은 세 가지 흐름을 보여 줍니다. **영광 →**

Yochanan 12:41-50 presents three movements: **빛 → 말씀**입니다. 이사야후는 영광을 보았습니다. **glory → light → word**. Yishayahu saw the glory. 예호수아께서는 그 영광을 드러내는 빛으로 Yehoshua came as the light revealing that glory. His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은 사람이 계시된 진리에 word then becomes the decisive test of how a person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판별하는 결정적인 기준이 responds to what has been revealed. 됩니다.

지도자들의 비극은 빛을 알아볼 만큼 가까이

The tragedy of the rulers is that they came close 왔으면서도 순종이 요구할 대가를 두려워했다는 enough to the light to recognize it, yet feared what 것입니다. 예호수아께서는 그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 obedience might cost them. Yehoshua demonstrates 주십니다. 그는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도 않고 자기 the opposite posture: He neither seeks human 자신에게서 나온 말을 하지도 않으며, 아버지께서 approval nor speaks from Himself; He faithfully 말기신 말씀을 충실히 전하십니다. delivers what the Father entrusted to Him.

말기신 말씀을 충실히 전하십니다.

The Pearl: True faith is revealed when the glory of **진주:** 참된 믿음은 사람의 인정보다 **야훼의 영광을 더** YHWH becomes more valuable to us than the **귀하게 여길 때 드러냅니다.** approval of people.

Mussar

Do not confuse private agreement with faithful obedience. The rulers believed inwardly but remained silent outwardly. Truth that never governs our choices has not yet been given its rightful authority.

마음속 동의를 충실한 순종과 혼동하지 마십시오. 지도자들은 속으로 믿었지만 겉으로 침묵했습니다. 우리의 선택을 다스리지 못하는 진리는 아직 합당한 권위를 얻지 못한 것입니다.

Examine whose approval controls you. Fear of losing reputation, acceptance, position, or relationships can quietly become stronger than fear of YHWH.

누구의 인정을 가장 의식하는지 살펴보십시오. 명성, 인정, 지위 또는 관계를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조용히 야훼를 경외하는 마음보다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Walk in the light you have already received. Greater revelation is not always the answer. Sometimes the real need is obedience to what YHWH has already shown us.

이미 받은 빛 가운데 걸으십시오. 더 많은 계시가 항상 해답은 아닙니다. 때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야훼께서 이미 보여 주신 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Remember that the Word is both mercy and accountability. YHWH sends His word to call us out of darkness and into life. The proper response is therefore not merely to hear it, but to receive it and walk according to it.

말씀에는 자비와 책임이 함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야훼께서는 우리를 어둠에서 생명으로 부르시기 위해 말씀을 보내십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반응은 단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따라 걷는 것입니다.

Core Mussar

Do not trade the glory of YHWH for the approval of people. Walk openly in the light you have received, because hearing truth creates responsibility to live by it.

사람의 인정을 얻기 위해 야훼의 영광을 바꾸지 마십시오. 받은 빛 가운데 담대히 걸으십시오. 진리를 들었다는 것은 그 진리에 따라 살아야 할 책임이 생겼다는 뜻입니다.